

동신대 학생들, 방학 땀 ‘열공’ 학기 중 ‘기업 실습’



동신대 캠퍼스는 학기 중이나 방학이나 별 차이가 없다. 방학 때 전공 학점을 미리 따고 정규 학기에 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다. 방학 기간에도 학교를 찾아 수업을 듣고 있는 동신대 학생들. <동신대 제공>

동신대 캠퍼스는 방학인데도 전혀 방학 같지 않다. 지난 6월 27일 개강,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방학 장기 현장실습(IPP) 전공 계절학기’를 들으려는 학생들로 강의실은 학기 중만큼이나 붐볐다. 식당에도 점심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북적였고 도서관에도 학업 열기로 후끈했다.

공과대학 학생 뿐 아니라 문화관광대 호텔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17개 학교 학생들은 이날도 학기 중이나 방학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분주히 캠퍼스를 오갔다.

이들 학생들은 올 여름 방학 때 미리 전공 학점을 따두고 정규 학기에는 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파견’돼 산업 현장을 경험하는 ‘현장 실습’에 나서게 된다.

방학 기간, 수업에 참여해야 해 탈락하지 않을 법도 하지만 선발하는 기업이나 직업에 대한 현장 체험 기회를 미리 갖게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기대와 설렘을 엿볼 수 있다.

동신대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장기현장실습(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나타난 방학 캠퍼스 풍경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이 중심이 돼 ‘학습 근로자’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교육훈련제도다.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란 사회 진출을 앞두고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이 전공 분야 기업에서 4~10개월 동안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입장에서 우수인재를 미리 확보하면서 신입사원 교육·훈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현장성 있는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의 현장실무 능력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동신대를 비롯, 올해 10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동신대는 오는 2021년까

고용부 ‘일학습병행 사업’ 53억원 지원

전공 바탕 실무 위주 ‘기업 인재상’ 교육

150명, 혁신도시 공기업 등 50곳 파견



동신대학교 IPP센터 2016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제 시어 사진

동신대가 올해 첫 시행한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는 15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지 5년간 53억여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실습기간 동안 월 130만원 상당의 훈련지원금을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데다, 현장실습을 통한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동신대측은 “시행 첫 해에도 17개 학교에서 15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대단하다”고 귀띔했다.

오는 9월부터 영종스카이라이프에서 현장 실습을 받게 되는 이혜리(여·23·호텔경영학과 4년)씨는 “탄탄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전공 공부에 현장 실습 경험도 쌓고 학비까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등 참여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기반으

로 협약을 맺은 산업 현장으로 파견, 직무를 익히고 직업·직장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측은 이같은 특성을 반영해 전공 수업 뿐 아니라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업 근무태도·자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강의를 병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 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와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동신대의 경우 올해 한국전력·한국농어촌공사·한전 KPS·한전KDN·한국전력연구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을 비롯, 에어코리아·제주금호리조트·한국국토정보공사·골든듀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50개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동신대는 이미 가족회사,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100~120개 참여 기업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021년까지 5년간 참여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신대는 나아가 내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함께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산학협력 교육 모델’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신대는 대학창조원지리센터 사업과 IPP사업까지 선정된 것을 계기로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교과과정을 확립, 취업 경쟁력이 강한 대학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전진 동신대 IPP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য়ে 될 것”이라며 “대학·산업체간 취업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공고, 산업 특성화 교육 우수상

산업인력공단 NCS 경진대회

광주공고(교장 장기석)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실습 중심의 직업 교육을 진행해온 공주의 대표적 특성화고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이다.

광주공고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NCS 활용 대회’에서 선도적 직업 교육을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광주공고는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사진)을 수상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고용노

동부와 함께 NCS 기반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 수요에 적합한 실무 과목을 편성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해왔다.

광주공고의 경우 금형·기계가공, 자동화·기계 설계 제작 분야 등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특성화한 정밀기계과와 기계시스템과 등 7개 학교 교육 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실무과목을 편성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습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NCS 사업을 총괄하는 이동승 교무부장은 “이론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들의 능력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 민주마루 개관 기념 페스티벌



11월까지 무료 공연

전남대학교는 옛 대강당을 개조한 민주마루(사진)에서 오는 11월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연다.

첫 공연은 오는 4일 오후 7시 민주마루 앞 잔디밭에서 펼쳐진다. 플루티스트 최지혜, 김보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 테너 윤병길, 바리톤 공병우 등의 클래식 공연이 예정됐다.

오는 9월 23일 열리는 공연은 국내 정상급 국악인 10여 명과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동문, 학생들이 ‘가을을 그리는 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들의 오페라 라보레(10월 13~15일), 노르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11월 15일) 등도 예정돼 있다.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광주시내 (062)

북구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양오 522-7752
양봉 512-8116
양산 654-2985
중남광 222-9440
동명부 222-9054
동부양 225-6001
중장 222-1896
중장부 222-8171
남백 652-0175
봉선 651-1833
봉선하 675-5530
송진월 675-6605
광천 671-7276
상무 382-5788
서광주 372-2352
서광주 369-0583
문천 376-7153
문치 376-6511
동화 603-0311
화평 369-0583
화평 941-9174
광천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동구

남구

서구

광산구

전남 (061) · 전북 (063)

동부권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중부권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서부권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전북권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죽지성 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개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